# 오케스트라와 '만해'로 기리는 3.1절

**광주필하모니오케스트라 3.1 기념공연**
**'불교시인 한용운이 부르는 님의 침묵'**

천안 예술의 전당 2월 16일 오후 7시
서울 롯데콘서트홀 2월 17일 오후 7시

**'님의 침묵' 등 만해 스님 대표시 낭송**
**클래식음악·고전무용 등 컬래버무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만해 스님.


광주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3.1운동의 주역이었던 만해 스님의 시와 삶을 통해 3.1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공연이 마련된다.

경기도 광주시 클래식 전문공연 단체인 광주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2월 16일 천안 예술의전당과 17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3.1절 기념 '불교시인 한용운이 부르는 님의 침묵' 공연을 개최한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스님을 통해 항일투쟁과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잊혀가는 민족적 자긍심과 3.1운동 정신을 다시 한 번 조명하는 이번 공연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레퍼토리로 구성된 공연으로, 시낭송 및 고전무용, 비보이, 연극배우 등이 함께하는 컬래버레이션 무대로 펼쳐진다.

지휘자로 김기원, 사회자 서기철, 소프라노 이다미, 테너 하만택(서울), 테너 조규대(천안), 시낭송자 박종선, 고전무용가 정은선, 비보이 서승현, 극단파발극회 등이 출연한다.

공연은 시벨리우스의 곡 'Impromptu(즉흥곡)'를 배경음악으로 한 만해 스님의 시 '님의 침묵' 낭송으로 시작한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서곡(Overture Finlandia)'에 이어 드보르작의 'Slavonic Dances Op.72 No.2' 연주를 배경으로 만해 스님에 대한 해설이 이어진다. 소프라노 이다미의 '비가'와 '고향'이 이어지고, 만해 스님의 시 '알 수 없어요', '나의 꿈' 낭송이 이어진다. 테너 조규대(천안 공연)와 하만택(서울 공연)이 김동진의 '가고파', 현제명의 '희망의 나라로'를 부르고, 관현악곡의 아리랑이 이어진다. 인터미션 후 황병기의 침향무, 3.1운동, Polovtsian Dances (오페라 '이고르공' 중), 만해 스님의 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룻배와 행인' 낭송, 독립선언문, 독립군가, 차이코프스키의 'Overture 1812년'이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75명의 연주자를 포함해 출연진, 스텝 등 총 11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이다. 지역단체로서 중앙무대에서의 큰 공연으로 광주시를 알림으로 2024년에 개최될 세계관악 컨퍼런스를 앞두고 시작되는 광주시의 문화예술행사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올해 경기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 등록됐다.

만해 스님은 1986년 설악산 오세암에서 불교에 입문했다. 이후 블라디보스톡 등 시베리아와 만주 등을 여행하고 1905년에 설악산 백담사에서 연곡 스님을 은사로 정식 득도했다. 한문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역경에 주력했으며 1910년에는 불교의 유신을 주장하는 〈조선불교유신론〉, 1914년에 〈불교대전〉 〈채근담〉 주해본을 발표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만주지방 여러 곳에 있던 독립군의 훈련장을 순방하면서 독립군에게 독립정신과 민족혼을 심는 일에 매진했다. 1918년 불교잡지 월간 〈유심〉을 발간했으며, 1919년 3.1운동에 백용성 스님 등과 함께 불교계 대표로 참여했다. 1920년 만세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으며, 출소 후에도 강연 등 여러 형태로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1925년에 오세암에서 선서 〈십현담주해〉를 탈고하고, 1926년 한국 근대시의 기념비적인 작품이자 그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을 발표했다. 수록된 88편의 시는 대부분 민족의 독립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사랑의 노래로 형상화했다.

1927년 일제에 항거했던 '신간회' 결성을 주도했으며, 1930년 권상로가 운영해오던 잡지 〈불교〉를 인수해 불교를 널리 알리는 일에 매진했다. 고루한 전통에 안주하려 했던 불교를 비판했으며, 승려의 자질향상과 기강확립, 생활불교 등을 주창했다.

1938년 불교계 민족투쟁비밀결사단체인 만당사건으로 동지들과 함께 검거되어 고초를 겪었다.

1944년 6월 29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입적했다.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 그리고 3.1운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중의 하나가 '만해'일 것이다. 그의 이름은 독립운동사는 물론이고 한국문학사와 한국불교사에 걸쳐 진하게 새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유기적인 그의 업적들은 한국사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번 공연은 만해 스님이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혁신론자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지닌 선지식이었음을 다시 한 번 조명하고, 그를 통해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립순천대博 '불교문화재 순천나들이' 展



수능엄경(보물).

**2월 28일까지(10월 말까지 연장)**
**금룡사 〈수능엄경〉 등 200여 점**
**3월 선암사 보물 특별전도 예정**
**2022 국립대학교 육성사업 일환**

전남지역 불교문화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은 2월 28일까지(10월 말까지 연장 예정) 2층 상설전시실에서 특별전 '불교문화재 순천나들이'를 개최한다.

지역에 숨겨진 불교문화와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2022학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순천 금룡사 소장 〈수능엄경〉·〈묘법연화경〉과 순천대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순천 금둔사, 광양 옥룡사, 영암 천황사 등의 유물 약 200여 점을 선보인다.

대표 유물인 국가지정 보물 〈수능엄경〉은 1461년(세조7) 교서관에서 간행한 10권 10책 가운데 권1에 해당하는 금속활자본이며, 간경도감 최초의 대역 불경 언해서이다. 금룡사 소장본을 대본으로 하여 1462년(세조8)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판본이 이후 〈수능엄경〉의 정본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특히, 금속활자본인 〈수능엄경〉은 서지학적으로 귀중하며, 한글 창제 무렵의 국어특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귀중한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수 박물관장은 "'불교문화재 순천나들이' 특별전을 통해 전남 동부 지역의 대표 박물관인 순천대박물관이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성과와 지역에 숨겨진 불교 보물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기획하였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대학교박물관은 3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2층 상설전시실에서 2023년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념 '세계문화유산 선암사 보물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특별전 '불교문화재 순천나들이'도 10월 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 국립중앙박물관 2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오후 6시~9시)에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2월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특별전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를 비롯해 상설전시실 곳곳에서 문화유산과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된다. 특별전시실의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에서는 외규장각 의궤가 돌아온 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의궤 속에서 찾아낸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 소개한다.

선사고대관 구석기실에서는 '세계의 구석기 문화'라는 주제로 한반도에서 출토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가진 세계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고구려실 '고구려 기와의 이해'에서는 고구려 기와 출토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백제실에서는 백제의 금제품과 건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백제 금제품의 제작 특성'과 '백제의 건축 장식'이라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다.

중근세관 고려실 '고려시대 불교문화'에서는 고려의 불교문화가 남긴 문화유산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조선실에는 '조선의 유교화와 소학',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주제가 마련되어 조선시대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과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서화관 서화 I 실에서는 '서화의 제작기법'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서화의 제작과정과 그 기법에 대한 보존과학적인 설명을 전시품과 함께 들을 수 있다. 서화Ⅱ실에서는 '천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경사를 남기다-무신진찬도'와 '왕세자 책봉기념 병풍-요지연도'가 진행된다. 왕실의 진찬과 의례를 기록한 '궁중행사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다.

그 밖에도 '조선 백자에 나타난 외래요소', '조선시대 불화에 사용 된 채색 안료', '두 보살 이야기 - 간다라와 그 이후', '책으로 만나는 박물관' 등 상설전시실의 다양한 전시관에서 다채로운 주제의 큐레이터와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